2007 광주·전남서 살아보니…

㊦ 정부 제2 전산센터 직원들

"음식 맛있고 집값 싸고 교육 좋더라"

광주살이 새 맛…전 가족 이사 계획

성격 급한 운전문화엔 아직도 불만

12년차 공무원 김길동(42·서울시 양천구)씨는 24일 새벽 5시 20분 서울 용산역에서 송정리행 KTX에 몸을 실었다. 잠에 취해 있는 아이들이 혹시 깰까 걱정돼 가만히 빠져나온 것이 못내 가슴 아팠다. 김씨가 매주 월요일 새벽 광주행 KTX를 타게 된 것은 서울에서 출퇴근했던 직장이 통째로 광주로 옮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11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의 통신보안 전문요원이다. 그는 지난 9월부터 가족과 떨어져 광주에 내려와 전산센터 개청을 준비해왔다. 건교부·검찰청 등 24개 정부 기관 전산을 통합운영하게 되는 센터는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김씨 등 120여명이 광주에 내려와 새살림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지방에서 어떻게 사느냐' '광주 가면 텃새가 심할 것이다'고 말해 솔직히 여러 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내년 초에는 '주말부부'도 청산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망설였는데, 막상 광주 체험을 해보니 '데려와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에도 서울 강남처럼 '교육특구'도 있고, 선생님들의 실력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높더라고요."

김씨는 요즘 "갖 개소한 직장만 안정되면 곧 이사하자"라며 아이들과 아내를 다독인다.

센터 근무 공무원 중에 김씨처럼 주말부부인 직원은 절반인 60여명. 이들은 대부분 센터 주변 아파트에 마련된 숙소에서 4~5명씩 모여 자취생활을 하고, 주말엔 서울이나 대전의 가족에게 간다.

이사 초기엔 직장 동료와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소주잔을 기울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맘고생도 많았다. 아직까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센터가 안정을 찾으면 가족을 광주로 불러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남도 여행도 떠날 계획이다.

대구가 고향인 장광수(50) 센터장도 '나주곰탕'이나 '창평국밥' 등 별미를 찾아다니며 '광주 살이'의 새 맛을 찾고 있다.

광주서 살아보니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치안상태 아주 좋고 집값 싸고 음식 맛있고, 더 없이 좋다는 것이다.

단, 함부로 끼어들고 갑자기 유턴하는 성격급한 광주사람들의 운전습관만은 정말 질색이라는게 센터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 11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직원들.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에 앞서 정신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광주에서 살아가는 맛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면도 수거된 타르덩어리

'급성치사성 생물독성' 확인

서울대 최경호 교수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원유 유출사고 지역에서 수거한 타르덩어리에 대해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실험을 한 결과 '급성치사성(急性致死性) 생물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로부터 의뢰를 받은 서울대 최경호(환경보건학과) 교수 연구팀이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수거한 타르물질을 희석한 물(농도 60㎎/ℓ)에 물벼룩을 48시간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더니 물벼룩의 절반 이상이 치사해 급성치사성 생물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가 더 낮은 물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물벼룩의 치사량이 50%를 넘지는 않았지만 죽지 않은 물벼룩들도 물 표면에서 부유하고 움직임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시민환경연구소는 덧붙였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오일볼' 논란을 일으킨 타르덩어리가 휘발성과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타르덩어리는 유출된 원유 중 독성이 강한 휘발성 성분은 대기 중으로 날라가고 중유 등 무거운 성분이 물과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해수 중으로 용출되어 나오는 유독성분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태풍 매기 7억 보험사기' 부부 중형

광주지법 7년 선고

멀쩡한 남편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처럼 속여 7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4일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7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와 박씨 아내 문모(25·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함께 놀러갔는데, 오빠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허위 진술한 박씨의 여동생(35·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보험회사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담하게 진행됐다"면서 "편취한 돈으로 유흥비와 사치품을 사는데 탕진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도 보험금 편취를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분담해 실형이 불가피하나 어린 자녀가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술값 주겠다" 유인 성폭행 하려다…

쌍나팔

○…여수경찰은 24일 술값을 주겠다고 술집 여주인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문모(41·전주시 덕진구·선원)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께 여수시 동산동 S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N선원소개사무실로 주인 A(여·50)씨를 데려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

○…문씨는 20여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절반만 낸 뒤 "나머지는 임시 숙소로 쓰는 사무실에서 줄 테니 따라와라"고 양씨를 속였다는 것.

○…경찰관계자는 "A씨가 '목욕을 하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며 기지를 발휘해 화장실에 들어간 뒤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와 더 큰 화를 당하진 않았다"면서 "범행 후 달아난 문씨를 인근 숙박업소를 탐문해 붙잡았다"고 설명.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자선냄비 사랑이 '듬뿍'

100만 원 수표 익명으로 기부

봉사자에 장미 꽃다발 선물도

추운 날씨도, 어려운 경제도 이웃을 돕겠다는 훈훈한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지는 못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해 본 세상의 모습이다.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점퍼 차림을 한 50대 남성이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자선냄비에 넣은 뒤 말없이 사라졌다. 23일에는 100만원짜리 수표가 자선냄비 안에 넣어져 있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운 자선은 올해도 계속된 것이다.

현금 대신 교통카드와 헌혈증서를 구세군 손에 쥐어준 학생, 구세군 자원봉사자에게 장미 꽃 한다발을 전달한 청년, 구세군 봉사자들의 밥값을 자선냄비에 담은 식당 주인의 사연도 세밑을 뜨겁게 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한 20대 여성은 돌 지난 아이를 업고 나와 2시간 동안 길거리 모금활동을 했다. 친구사이인 여중생 4명도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광주 구세군 교회 이기풍(52) 사관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지금까지 구세군의 모금액은 줄어든 적이 없다"며 "아직까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구세군 33년 경력의 이 사관은 "10년전만 해도 동전이 많았지만 몇해전부터는 천 원짜리 지폐가 대부분이다"며 "아직까지 광주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헌금하는 '디지털 자선냄비'에 대한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주 구세군 자선냄비 올 목표액은 1천500만원. 모금된 돈은 구세군 대한본영으로 보내져 저소득 가정, 재해민 구호, 실직 노숙인 재활사업 등에 쓰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이스 피싱 사기

중국인 2명 영장

목포경찰은 24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곡모(38·경기도 시흥시), 여모(여·36)씨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곡씨 등 2명은 지난 9월18일께 김모(여·41·목포시 정왕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속여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에 40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지난달 14일까지 6명으로부터 8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